

'1R MVP' 이다영, 다시 꽃길이다

〈현대건설〉

국가대표 세트 출신 이도희 감독 특훈 세트 부문 1위·블로킹 세트당 0.65개 염혜선에 가려진 그는 벗어나 날갯짓



현대건설 이다영(21)은 2014~2015시즌 1라운드 2순위로 프로무대를 밟았다. 쌍둥이 언니 이재영(흥국생명·21)과 함께 상위지명을 받으며 프로 첫 발을 '꽃길'로 내딛었다.

그러나 첫 발걸음을 땀 뒤에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이다영은 올해초까지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과 나홀로 고군분투했다. 가장 먼저 그를 압박한 건 '국가대표 세트' 염혜선의 존재였다. 염혜선은 올 시즌을 앞두고 IBK기업은행으로 이적했지만, 이다영은 그 전까지 불박이 주전에 밀려 3년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심지어 지난 시즌에는 라이트로도 기용되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언니 이재영의 활약도 내심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다. 이다영은 지난 시즌 흥국생명의 주포 역할을 맡아 팀을 정규시즌 우승으로 이끌었다. MVP까지 차지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는데, 이다영의 미진한 활약은 언니 이재영과 종종 비교되곤 했다.

넘치는 끼와 눈에 띄는 외모가 역차별을 불러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는 올스타 팬투표에서 매년 높은 득표를 기록해 별다른 무대에 단골손님으로 초대됐다. 특유의 끼를 발휘하며 팬서비스에 나섰다. 올스타가 끝나면 돌아오는 대답은 '출



현대건설 이다영(오른쪽)이 8일 수원에서 열린 GS칼텍스전에 앞서 이도희(왼쪽에서 두 번째) 감독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이다영은 올 시즌 1라운드 MVP를 차지하며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털어냈다. 수원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출 시간에 연습이나 더 해라' 등의 비난이었다.

절실하게 변화가 필요했다. 짙은 그늘 속에 있는 그에게 손을 내민 것은 새로운 사령탑 이도희 감독이었다. '국가대표 세트', '컴퓨터 세트'로 이름을 날렸던 이 감독은 이다영을 주전 세터로 키울 것을 천명하며 올 시즌을 시작했다. 이다영은 스승의 믿음에 즉각 보답했다. 1라운드 세트 부

문에서 세트당 11.5개를 기록해 전체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블로킹도 세트 당 0.65개를 기록해 특유의 장신 이점을 십분 살렸다. 그는 활약을 인정받아 1라운드 MVP로 선정됐다.

그러나 스스로의 기량에 100% 만족할 수는 없다. 이다영은 8일 수원에서 열린 GS칼텍스전에서 불안한 토스로 공격진의 효율을 극대화시

키지 못했다. 공수에서 흔들린 현대건설은 GS칼텍스에게 세트스코어 2-3으로 패하면서 2라운드 첫 패를 당했다. 이 감독은 "이다영은 올 시즌 경기 몰입도가 매우 높아졌다. 하지만 경기 운영과 팀포 조절에서는 여전히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며 당근과 채찍질을 함께했다.

수원 | 정은상 기자 award@donga.com

스포츠토토 잠시 쉽니다

매출총량 준수 위해 일시 발매중단 18~27일 8시까지 환급·환불 못해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이하 스포츠토토)이 매출총량을 지키기 위해 일시 발매중단에 들어간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도입한 사행산업매출총량 제한제도를 준수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사감위는 2009년부터 체육진흥투표권과 복권, 경마, 경륜, 카지노, 경쟁 등 국내의 합법사행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 한도를 지정하는 매출총량제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사행사업자들은 사감위가 지정하는 매출총량 한도를 지켜야 한다. 어길 경우 이듬해 해당 사업의 매출총량 한도가 축소되는 등 여러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수탁사업자(케이트토(대표 손준철))는 매출총량을 준수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7월에는 국내프로야구 경기를 핸디캡 게임에서 제외했다. 8월에는 인기 높은 해외축구 대항경기에서 소수 핸디캡과 언더오버 게임을 발행하지 않았다. 일부 경기에서는 핸디캡 또한 제외했고 토트상품 발행도 꾸준히 축소 운영해왔다. 심지어 올해 벌어진 북중미 월드컵을 비롯해, 유로바스켓 등 스포츠포드의 관심이 높았던 국제대회마저 대항경기에서 배제하는 등 갖가지 방안을 펼쳤지만 스포츠포드의 뜨거운 참여열기와 스포츠포드의 저변확대 탓에 추가적인 매출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발매중지 이후에도 매출총량 준수를 위해 추가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다. 불법스포츠포드 박시강 확대와 고객만족도 하락, 영세한 판매점의 생계문제 등 발매중 조정으로 발생할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케이트토는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매출총량이라는 국가정책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발매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일시 발매중단 기간은 17일 0시부터 27일 8시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전국의 스포츠포드 판매점과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타맨의 토트·프로토 게임 발매와 환급, 환불 등의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다.

단 환급·환불은 18일 0시까지 전국 판매점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이후 환급·환불 중단 기간 내 지급기한이 만료되는 투표권은 해당 만료 기한이 9일씩 연장된다. 케이트토는 "국가사업을 운영하는 수탁사업자로서, 반드시 정부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발매중단이라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된 점에 깊은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 이번 발매중단 기간 동안 시스템점검 등을 통해 더욱 원활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발매를 비롯해 환급 및 환불 등 모든 서비스는 27일 오전 8시에 재개된다.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포드 홈페이지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타맨(www.betman.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11월 11일은 '로드 FC 데이'

로드 FC 044 '100만 달러 토너먼트' 8강 밤 12시35분엔 '겁 없는 녀석들' 첫 방송



11월 11일은 로드 FC(대표 정문홍) 데이가 될 전망이다. 로드 FC는 11일 중국 석가장 하복체육관에서 로드 FC 044를 개최한다. 같은 날 MBC-TV에서는 지상파 최초 격투오디션 프로그램 '겁 없는 녀석들(사진)'이 첫 방송된다.

로드 FC는 2015년 12월 'XIAOMI ROAD FC 027 IN CHINA'로 처음 중국에 진출했다. 이후 북경, 창사, 석가장까지 4회의 중국대회를 개최했다. 로드 FC는 1년 만에 다시 석가장을 찾아 중국대회 개최를 재개한다.

로드 FC 오디션 '겁 없는 녀석들'은 대한민국 최초로 지상파에서 방송되는 격투오디션 프로그램이다. 톱 모델 한제진이 진행을 맡고 개그맨 정준하, 로드 FC 정문홍 대표, 슈퍼주니어 이특, 개그맨 윤희빈, 로드 FC 라이트급 챔피언 권



아솔, 소사이어티 게임2에 출연 중인 권민석이 멘토로 함께한다. 서류심사와 1차 예선을 거쳐 일반인 최종 참가자가 확정됐고 현재 프로그램이 제작 중이다. 오디션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최

후의 1인에게는 우승상금과 함께 로드 FC에서 프로 파이터로 데뷔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로드 FC 044는 11일 오후 6시부터 MBC스포츠플러스에서 생중계된다. 중국 MMA 슈퍼스타 아오르꺼려의 출전, 100만 달러의 거액이 상금으로 걸려있는 토너먼트 ROAD TO A-SOL 8강전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밤 12시35분부터는 MBC-TV에서 '겁 없는 녀석들'이 방송된다.

최현길 전문기자 choing2@donga.com

Pyongyang 2018 | 평창동계올림픽 G-92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후원 협약

이회범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왼쪽)과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 회의실에서 열린 후원 협약을 마친 뒤 나란히 섰다. 평창동계올림픽의 '공형서비스' 부문 공식 후원사로 참여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재정적 후원은 물론 선수단과 올림픽 관계자들을 위한 전용 입·출국장과 세관심사대, 전용 버스 주·정차장 운영 등을 맡는다.

사진제공 | 인천국제공항공사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7-4677호(2017.10.17)

Cigna 라이나생명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든든한 암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겸보유

•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무료상담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015-9900